

사회·문화 과목에서 원인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오개념 분석

장 준 철

인천 영선고등학교

I. 서론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사회·문화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실시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에서 선택 과목 중 하나가 되었으며, 사회 탐구 선택 과목에서 수년간 선택률 1위를 다투는 과목으로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2009, 이정우·은지용 일부 인용). 그러나 수능 시험의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과목의 수업은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 획득을 위한 용어 해설 및 암기식 문제 풀이 수업, 추상적 개념 위주의 수업, 교사의 설명 중심 수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위 논문 일부 인용). 이러한 교수-학습 환경 및 평가 환경 아래에서 사회·문화 과목의 주요 학습 내용 요소에 포함되는 개념들에 대해 학습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오개념(misconception)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개념의 형성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은 현장의 교사 및 학생, 사회과 교육 연구자, 평가 담당자들 사이에 널리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학술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과 오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고 개념의 이해 여부를 측정하기 용이한 경제 과목이나 지리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문화 과목에 대한 오개념 연구는 이정우·은지용(2009)이 수행한 수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의 답지 반응률을 바탕으로 오개념 경향을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과목의 유일한 오개념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었지만, 외부로 공표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된 점, 평가자나 출제자 입장에서 오개념 경향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오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오개념이 형성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문화 과목을 실제 선택하여 공부하고, 수능 시험까지 치르는 학습자 입장에서 밝히는 오개념에 대한 경향과 원인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II. 오개념 원인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조사 방법

1. 구성주의와 오개념

학습자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진리를 얻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학습관과는 달리, 구성주의 학습관은 지식을 개인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적인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2002, 신미나). 개인은 어느 특정 사회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되며, 본인의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 인지 작용에 의해서 주어진 사회 현상을 이해하여 지식을 지속적으로 구성한다는 견해이다(1998, 강인애). 이러한 구성주의 인식론에 비추어 보면, 오개념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구성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관을 기준으로 학습자가 오개념을 구성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된다.

가. 피아제의 이론 및 인지 심리학적 연구

구성주의의 관점 중에서 개인의 인지발달과 인지구조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은 피아제를 필두로 하는 인지적 구성주의이다. 피아제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지적 틀을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으로 설명하면서, 완전하게 인간의 인지에 지식이 구성되기까지 조절, 동화, 평형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피아제는 외부로부터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에 적응하는 동화, 그것을 본인의 인지구조에 맞추어 변형하는 조절,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추어져서 안정적으로 도식에 자리 잡는 평형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던 것이다(1998, 강인애 일부 인용). 피아제의 인지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오개념이 형성되는 원인을 고찰해 보면, 위의 조절, 동화, 평형화 과정에서 전부 혹은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아제의 또 다른 주요한 이론 중 하나는 인지발달 이론이다. 인지발달 이론은 인간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동일한 인지발달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네 시기로 나누었는데 감각운동기(출생-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세 이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2008, 정희영).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여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피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경우에 모두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지발달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과 시기에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개인 간 인지발달 차이에는 다른 환경의 영향도 상당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지식과 개념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인지 수준은 일괄적인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지발달은 동일한 수준과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인지 수준과 능력의 차이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지 능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주로 인지 심리학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Anderson(1976)과 Gagné(1977)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derson과 Gagné의 연구는 지식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상징체계인 언어를 통하게 되고, 다시 인출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식과 개념은 처음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단기 기억으로 머무르지만, 조직화나 정교화 등의 전략을 통하여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수시로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적 인지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습득한 개념을 장기간 유지하고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Woodruff(1961, 78)는 지식과 개념을 받아들이고 인지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언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Woodruff는 언어라는 것이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면서, 개념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로 대표되는 상징체계를 해석하고 조정하는 능력에 따라서 개념이 습득되는 과정이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개념의 형성에 언어와 관련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피아제의 이론과 관련된 연구, 지식과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지적 영역의 연구를 통해서 오개념이 형성되게 되는 유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모두 학습자 인지가 작용하여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인데, 학습자 인지에 잘못된 영향이 전달되거나 학습자 개인적 능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에 오개념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오개념 원인을 학습자 내부 요인으로 보기로 한다.

나. 비고츠키의 이론

피아제 관련 이론과는 달리 비고츠키는 인간의 사회적 경험이 그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개인의 인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된다고 보았다(김판수 외 6인, 2000). 비고츠키와 관련 이론들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개인적인 학습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불리운다. 비고츠키의 이론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사회적 관점에 따라서 실재와 현실을 바라보고 지식과 개념을 구성하며, 해석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경험 등에 의해서 지식과 개념이 형성되는 정도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비고츠키의 이론 중에서 오개념에 중요한 시사를 주는 또 다른 개념은 ‘근접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다. 근접발달 영역은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더 능력 있는 동료와의 협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더 높은 잠재적 발달수준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였다(Wertsch, 1985). 즉, 지식과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조력 작용이 어떻게 작동하였는가에 따라서 형성되는 과정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고츠키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오개념의 또 다른 원인을 유형화 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 및 경험에 의해서 지식과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오개념도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가 학습자 내부의 인지구조와 인지발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오개념 형성의 내부적 요인을 밝히고 있다고 본다면, 비고츠키와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습자 외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오개념 형성의 외부적 요인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오개념 형성 원인의 유형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오개념 형성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할 수 있다. 피아제와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 및 인지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학습자 내부 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비고츠키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서 학습자 외부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학습자를 기준으로 어떤 과정과 영역에 오개념이 형성 되도록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분하여 학습자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었으며, 앞서 고찰한 관련 연구들과 이론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의 오개념 형성 원인을 유형화하여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오개념 형성 원인의 유형화 기준

내부적 요인	지각 능력 부족	개념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오개념 유형
	인지 구조화 과정의 오류	개념을 습득하여 조절, 동화, 평형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 오개념이 형성된 유형
외부적 요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전달 혹은 유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과서, 교사 등에 의해 오개념이 전달되거나 유발된 유형
	사회·문화적 배경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주어 나타난 오개념 유형

학습자 내부적 요인으로 분류된 첫 번째 유형은 지각 능력의 부족 요인이다. 이는 학습자 개인이 개념을 인지구조 속에 투입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오개념이 일어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연구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양상으로 개념에 대한 기억 혹은 재현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 경우나, 어휘력이나 문장 해석력 등 언어 관련 능력의 부족하여 오류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인지 구조화 과정의 오류 요인이다. 이는 피아제가 말한 스키마에 개념이 들어와서 이를 학습자가 형성하기 위해서 조절, 동화, 평형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양상으로 개념을 단순화 혹은 이분법화하는 경우, 개념 적용 범위를 확대 혹은 축소하는 경우, 이론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된 첫 번째 유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전달 혹은 유발된 요인이다. 이는 학습자가 지식과 개념을 형성하는 다양한 환경 중에서 학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구체적 양상으로 교과서 및 교재의 표기의 오류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교사나 강사에 의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오개념이 유발 혹은 전달된 경우, 타 과목의 학습 내용이나 학습 경험의 영향이 오개념을 형성하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이다. 이는 학습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배경들이 영향을 주어서 오개념이 형성된 유형이다. 구체적 양상으로 개인이 체험한 직간접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다.

2. 조사 방법

우선, 사회문화 과목에서 나타난 오개념 양상을 수집하기 위해 수능 시험의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사회·문화 과목으로 할 예정인 예비 수험생들을 연구 대상자의 기준으로 정하고,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의 세 학교를 섭외하여 고등학교 인문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가할 대상을 추천 및 지원을 받았다. 세 학교는 사립 남학교, 사립 여학교, 공립 남녀공학이었으며, 시설 학원을 한 곳 더 섭외하여, 학원 수강생 중에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총 4개의 학교 및 학원에서 25명의 연구 대상 학생들¹⁾을 섭외하였으며, 사회·문화 과목의 직전 모의고사 등급을 통해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속하도록 성취 수준별로 고루 선별하였다. 또한, 오개념 원인을 유형 별로 분석하고 오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직 학교 교사 4인과 학원 강사 1인도 추가로 섭외하여 연구에 추가하였다.

오개념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Think-aloud 기법을 사용하였다. 수능 시험과 모의 평가에 기출된 사회·문화 과목의 문항들을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자신들이 문항을 이해하고 풀이한 사고의 과정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녹음하고 각 문항에 나타난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오개념을 분석하는 자료로 삼았다. 미성숙한 학생들이 본인의 사고과정을 언어로 재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나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심층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질적으로 심층 분석하려고 하였으며, 해당 결과 일부를 섭외한 현장의 교사 및 강사와 함께 분석하거나 조언을 얻는 과정도 거쳤다.

Ⅲ. 오개념 원인 유형에 따른 구체적 사례

1. 오개념 원인 유형에 따른 오개념 출현의 빈도 분석

이론적 고찰 및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 학생 25명에게 10개 주제 총 63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Think-aloud 기법을 통해서 오개념이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추출한 결과 총 527회의 오개념이 출현하였다. 출현한 527회의 오개념을 <표 1>의 오개념 형성 원인의 유형화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2> 오개념 원인 유형 별 분석²⁾

원인 별 유형		성취 수준	상 (8)	중 (14)	하 (3)	계	
내부적 요인	지각 능력의 부족		33	66	30	129	437
	인지 구조화 과정의 오류		96	173	39	308	
외부적 요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전달 혹은 유발		20	32	9	61	90
	사회·문화적 배경		12	13	4	29	

* 성취 수준 괄호 안에 수는 각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인원수임.

1) 남학생 9명, 여학생 16명이었으며,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은 3개교 20명, 사설 학원에서 수집한 학생은 1개 학원 5명이었다. 학교와 학원은 영문 이니셜 A~D로 표기하였고, 연구 대상자 학생들의 성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2) 사회·문화 과목의 성취 등급을 기준으로 1~2등급은 상, 3~4등급은 중, 5~7등급은 하로 분류하였다.

오개념이 형성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원인은 학습자 외부 요인보다는 학습자 내부 요인이었으며, 학습자 내부 요인 중에서도 인지 구조화 과정의 오류로 분류되는 개념의 단순화·이분법화, 개념 적용의 확대 혹은 축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오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으로 학습자 내부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습자 외부 요인도 그 출현 빈도가 적을 뿐이지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이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성취 수준 별 대상 인원이 달라서 인원 당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성취 등급이 높을수록 1인당 오개념 평균 출현 빈도³⁾는 낮게 나타났지만, 상, 중, 하 간에 차이는 압도적인 정도는 아니며,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질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오개념을 고찰하고 표본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빈도 분석이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학습자 내부 요인에 의한 오개념 형성

가. 지각 능력의 부족

사회문화 과목의 학습에서 개념을 받아들이는 지각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파지 능력, 어휘력, 문장 해석력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상당수의 사례에서 이미 학습한 개념 입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세한 설명이 따를 경우에만 재현해 내는 경우가 많았다. 개념을 습득하고 이것이 학습 요소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였는데, 개념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습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오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학교(학원) : B - 정명원 (수형생을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항)

정 : 사회적 범주라는 말을 해설해 놓은 부분이 있었네요. 저도 얼핏 본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잘 잊어 버려요. 솔직히 다시 찾아보니 사회 집단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네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부분만 빼놓고 외우고 있었네요.

연구자 : 지속적 상호작용이 없으면 사회 집단이 아닌 사회적 범주가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기준을 빼고 이해했구나.

정 : 그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열심히 보면서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능이 부족한 것인지 일부분을 빼먹고 알고 있네요. 그러니 자꾸 이상한 소리만 선생님께 하는 것 같아요.

특정 개념 전체를 기억하지 못함과 동시에 개념의 주요한 속성을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된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사례이다. 파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개념은 적용조차 할 수 없었고, 개념의 주요한 속성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 전체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3) 학습자 외부 요인 중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요인은 1인당 오개념 출현 빈도 수가 상, 하, 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성취수준이 높으면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과 연결지어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취수준이 낮으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학원) : B - 김윤성 (사회과학 연구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일어난 과정을 파악하는 문항)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을 봤는데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
 이라고 나왔거든요. 저는 추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측정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물과 같이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가설에서 이념이나 사상과 관련된
 것을 실제 존재하는 사물과 관련된 명사형으로 바꾸는 작용으로 이해했거든요.

특정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어휘력과 문장 해석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
 표적 사례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에서도 알지 못하는 어휘가 등장하여 이를 제대로 받
 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을 옳게 해석해 내지 못하면서, 원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개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어휘력이나 문장 해석력이 개념을 인지 구조에 받아들여 형성하는 작
 용에 영향을 미치며, 언어와 관련된 능력이 개념 형성 뿐만 아니라, 오개념 형성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였다.

나. 인지 구조화 과정의 오류

인지 구조화 과정의 오류로 인한 요인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개념의 단순화·이분법화, 개념의 적
 용 범위의 확대 혹은 축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나뉜다. 이는 모두 개념을 제대로 습득하
 여 인지구조 속에 형성하였으나, 이를 문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구조 속에서 조절, 동화, 평형화 작
 용을 거치면서 잘못된 개념으로 산출이 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학교(학원) : D - 서지현 (계급과 계층을 구분하는 문항)

계급과 계층의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계급과 계층에 대한 설명을 보면, 각 특
 성이 계급은 갈등론이고 계층은 기능론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갈등론에서 계
 급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기능론에서 계층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계급과 계층이
 갈등론과 기능론에 1:1로 매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개념의 단순화 혹은 이분법화였다. 위의 사례를 보면, 계급과 계층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 구조에 정착하기 쉽도록 변형하는 것이
 보인다. 개념 안에 있는 다양하고 추상적인 속성을 모두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성
 질만을 가공하여 명확하게 보이고 기억이 쉽도록 단순화시키거나 상반되는 개념은 이분법화를 시키는 전략
 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학원) : A - 이승빈 (계층 구조 및 계층 이동을 파악하는 문항)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개방형 계층 구조이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과거 봉건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폐쇄형 계층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특성이 같은 계층 구조인데 기준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것이라고 봤어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오개념의 한 원인이었다. 계층

간에 비율을 기준으로 나뉜 계층 구조를 특정 시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시대에 주로 나타나는 다른 기준으로 분류된 계층 구조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정 개념이 적용되는 시대나 장소 등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학원) : B - 정명원 (지위, 역할, 역할갈등을 구별하는 문항)

역할갈등이 서로 다른 역할 간에 충돌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문제에서는 역할이 충돌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역할갈등이라고 설명하는 기호에 표시를 해두어요.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면 일단 역할을 찾아 써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 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대라면 역할이 되는 것이니까 역할갈등이 되는 것이죠. 시험 전날에 교과서를 볼지 오답노트를 볼지에 대한 고민을 보면 둘 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고민이니까 갈등이 되는 것이죠.

역할갈등은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주제였다. 수능시험이나 다른 평가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역할갈등이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다. 그러나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거나 개념에 대한 사례를 옹계 분석하여 습득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자신이 만들어 낸 기준에 의해서 개념을 재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3. 학습자 외부 요인에 의한 오개념 형성

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전달 혹은 유발

학습자 외부 요인 중에서 오개념이 형성된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전달 혹은 유발된 요인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과 직접적 관련 있는 활동이나 배경에 의해 오개념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전달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었다. 이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교과서 및 교재에 의해 전달된 경우, 교사나 강사가 전달된 경우, 타 과목의 학습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학교(학원) : C - 오연수 (사회집단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항)

교과서나 교재를 보면 1차집단/2차집단의 특징과 공동사회/이익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차집단은 전인격적, 비형식적 인간관계나 친밀감, 유대감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공동사회에서 전인격적과 정서적 유대 관계 같은 말을 또 써요. 2차집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오는데 이익사회에 특성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결합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봤는데 당연히 서로 같은 집단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동사회/이익사회와 1차집단/2차집단은 개념의 속성과 구체적 사례를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를 학습자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리해 주기를 원하지만, 원래의 개념 자체가 집단을 구분하는 목적도 아니었고 상당히 가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재의 표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교과서나 교재에 유사한 설명과 표현이 있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학원) : C - 김은빈 (사회과학 연구 방법 및 표본의 대표성을 판별하는 문항)

표본의 추출이랑 대표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도 수강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방법은 무엇이 있고 신뢰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루지 않고, 학원에서는 대표성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없다고만 나오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기출 문제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고 나온 적이 한번도 없고 또 대표성이 있다고 문제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출이나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어요. 임의 추출이라는 말도 선생님이 처음 설명해주신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교사나 강사의 내용 전달이 없거나 간단히 줄여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오개념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본과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나 강사는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본인이 가진 정보대로 학습자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경우에 오개념은 쉽게 형성되고 있었다.

학교(학원) : B - 조영대 (관료제의 특성을 묻는 문항)

저는 윤리와 사상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간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인간소외가 현대 사회의 익명성, 비인간성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부품처럼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회·문화에 보니까 관료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료제는 근대사회 이전부터 형성되어 내려온 조직인데,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관료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인간소외 현상을 관료제적 특성에서 제외시켰어요.

다 과목의 학습 경험도 오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이 윤리영역과 사회문화과목에서 특정 개념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과목을 학습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다소의 혼돈을 겪을 수 있고, 이 혼돈은 결국 오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 사회·문화적 배경

학습자는 교수-학습 이외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활동과 경험이 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개념을 형성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이 겪은 작·간접 경험이나 개인의 가정 배경에서 받은 영향 등은 드물지만 오개념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학교(학원) : B - 정명원 (사회복지 제도의 유형을 구별하는 문항)

공공부조에 생산적 복지 이념을 가미해서 빈민층을 자활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무런 효과

가 없으니까 오답 아닌가요? 제가 달동네 마을에 봉사 활동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중략) 거기 사람들은 생산적 복지니 머니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렵게 사는 모습은 볼쌍했는데 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공공 부조로는 자활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의 사례는 학습자 개인이 가진 경험이 오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회문화 과목에 등장하는 개념과 그 속성이 자신이 경험한 실제적 현상과는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자신이 경험한 실체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이 한정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개념을 수정하여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학교(학원) : C - 유희수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별하는 문항)

저는 제 스스로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이 현실 사회에 비판적이고 고칠 것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저에게도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서,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네가 커서 현명한 눈을 가지고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중략) 그렇게 자라왔는데 사회문화 과목을 배우다 보니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능론의 서술이나 주장은 일종의 핑계처럼 보이거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기능론처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신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능론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을 보면 자꾸 오류 같고 현실 세계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질서 유지, 안정 모두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세우는 구호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요.

위의 사례는 부모가 가진 성향이나 평소의 대화 형태가 어떻게 학습자로서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부모의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런 성향과 가치관이 굳어지게 되면서, 학습 내용으로 나오는 개념이나 이론도 일종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다. 중립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굳어진 성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구성주의 학습관과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오개념이 형성되게 된 원인을 유형화해 보고 해당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유형화 기준이 이론적으로 정밀하지 못하여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각 사례를 구분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오개념 형성에 단일한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개념에 대한 단편적인 실태 파악이나 양적 분석으로 얻을 수 없는, 학습자를 기준으로 하여 오개념이 형성되게 된 과정과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

다.

연구 대상 학생들 이외에 연구에 참가한 일선 학교 교사 및 강사 5인은 오개념을 수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학습자 내부적 요인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교과서나 교재의 풍부한 설명과 자료의 보강, 색인 사전과 부록과 같은 형태로 개념 설명 보충,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한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일선 학교에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수시로 참고하게 하는 대책 등이 제시되었다. 학습자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교과서나 교재의 집필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오개념을 야기하는 표현은 상호 협의하여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학습 내용의 구성과 배치에 유사한 개념을 떨어뜨려 놓아 혼란을 줄이자는 방안, 교사 및 강사에 대한 교과 연수의 강화, 오개념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한 자료를 교사 및 강사에게 배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 현장 이외에서 얻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오개념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개인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경험을 평가 과정에 도입하여 오개념을 일으킬 요소들을 수정해주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과목에서 나타나는 오개념에 대한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제언해 보았다.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사회·문화 과목의 오개념 연구라는 점과 학습자 중심에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밝혀 낸 오개념의 유형과 원인이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의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2010). **사회과 교육과정**.
- 강인애(1995).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 **교육공학 연구**. 11(2).
- 강인애(1997).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 구정화 외(2011).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 천재교육.
- 김영순 외(2011).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 교학사.
- 김제한(1998). **발달 심리학**. 양서원.
- 김진국·김일기(1998). 지리교사들이 제시한 고등학생들의 오개념 유형. **사회과 교육연구**. 5호. pp.169-198.
- 김관수 외(2000). **구성주의와 교과 교육**. 학지사.
- 문명신·최민식(2011).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효과성 분석 - 경제과목 오개념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15(1). pp.243-258.
- 박선웅 외(2011).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 금성출판사.
- 박종두(2007). **Think-aloud 기법을 이용한 사회과 문제해결 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미나(2002). **객관주의 인식론과 구성주의 인식론에 기초한 교육관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우·은지용(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과목의 답지 반응에서 발견되는 오개념 경향 연구. **사회과 교육**. 48(3). pp47-56.
- 정희영(2008). **피아제와 교육**. 교육과학사.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2010). **질적 연구 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 Gagné, D. E.(1985). *The cognitive psychology of school learning*. 이용남·박분화·조강모·김선남·송현종·송기주·오익수·염시창·이영길·오세덕·유정수·차영희·이경영·이민영·강만철·정환금 공역(1998). **인지심리와 교수-학습**. 교육과학사.
- Hauenstein, A. D.(1998). *A 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al Objectives : A Holistic Approach to Traditional Taxonomies*. 김인식·박영무·이원희·최호성·강현식·최병욱·박창언·박찬혁 공역(2004). **신 교육목표분류학: 전통적 분류학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교육과학사.
- Piaget, J.(1970).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s*. New York, Viking Press.
- Vygotsky, L. S.(1962). *Thought and language*. New York: Wiely.
- Wertsch, J. V.(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한양대 사회인지발달연구 모임 역(1995). **비고츠키 - 사회적 마음의 형성**. 정민사.